

류현진, 30일 만에 시즌 3승... 전재 과시

신시내터전서 5이닝 2실점 MLB 첫 밀어내기 볼넷 실점 타석에서 두 번 출루 2득점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왼손 투수 류현진(30)이 30일 만에 승수를 추가해 시즌 3승(6패)째를 올렸다. 류현진은 18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 주 신시내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터 레즈와의 방문 경기에서 시즌 11번째로 선발 등판해 5이닝 동안 안타 8개를 맞고 2실점(2자책점)했다.

8-2로 앞선 6회 타석에서 대타 엔리케 에르난데스로 교체된 류현진은 다저스가 10-2로 승리해 지난달 19일 마이애미 말린스를 상대로 2승째를 거둔 이래 30일 만에 승리투수가 됐다.

류현진은 또 2014년 9월 1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경기에서 승리한 이래 2년 9개월 16일, 날짜로는 1021일 만에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따냈다.

전날까지 필라델피아 필리스, 마이애미 말린스를 제물로 따낸 올 시즌 2승은 모두 홈에서 이룬 것이다.

다저스 타선은 일찌감치 8점을 벌여

류현진의 3승 달성을 지원했다. 옛세 전 40이닝 동안 4실점 하며 승패 없이 물러난 신시내터전 상대로 류현진이 타선 지원 속에 멋지게 설욕했다. 류현진은 이날 올 시즌 한 경기 최다인 105개의 공을 던져 65개를 스트라이크로 꽂았다.

지난 12일 등판에서 홈런 3방을 얻어맞은 신시내터 타선엔 이번에는 장타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듯 볼을 낮게 던지느라 초반 투구 수가 많았다. 3회까지 72개, 4회까지 88개를 던졌지만, 세 경기 만에 홈런을 허용하지 않았다.

최고 시속은 151km를 찍었다. 삼진은 올 시즌 한 경기에서 두 번째로 많은 7개를 휘어잡았다. 평균자책점은 4.42에서 4.35로 약간 내려갔다.

1회 코디 벨린저의 우월 2루타로 1-0으로 앞선 상황에서 마운드에 오른 류현진은 이번에도 1회 실점을 피하지 못했다. 이어진 무사 2루 추가 실점 위기에서 류현진의 위기관리 능력이 빛났다. 류현진은 2회에도 안타와 볼넷을 내줘 1사 1, 2루 고비를 맞았지만, 투수에서 위저하우스키를 우익수 뜬공으로 요리한 뒤 해밀턴을 10구째에 바깥쪽 낮게 파고드는 시속 150km짜리 빠른 볼로 삼진으로 속아내고 합승을 돌렸다.



류현진

다저스 타선은 1-1인 3회 초 대량 득점에 성공했다. 선두 타자로 나온 류현진이 그 불꽃을 뿜었다. 류현진은 위저하우스키의 시속 148km 빠른 볼을 잡아당겨 유격수 쪽으로 강습 타구를 날렸다. 코자트가 글러브를 썼으나 견어내지 못해 류현진은 유격수 실책으로 1루를 밟았다. 류현진은 무사 만루에서 등장한 수아레스를 풀 카운트에서 볼넷으로 내보내 2013년 메이저리그 진출 후 처음

으로 밀어내기 볼넷을 허용했다. 6-2로 쫓긴 채 계속된 무사 만루에서 류현진은 스카 세블러를 유격수 직선타로 잡아낸 뒤 호세 페라사를 투수 앞 병살타로 요리해 가까스로 대량 실점 고비를 넘겼다. 류현진은 4회 해밀턴에게 좌측 펜스를 직접 때리는 3루타, 5회 보도에게 가운데 펜스를 넘어가는 인정 2루타를 내졌으나 실점 없이 이닝을 끝냈다. 연합뉴스

호날두 이적 선언에 유럽 명문구단 ‘들쭉’

맨유·생제르맹 등 영입전 가세

세계적인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2)가 소속팀 레알 마드리드에 이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럽 명문구단들이 앞다퉈 관심을 보이고 나섰다.

18일(한국시간) 영국·스페인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호날두의 친정팀인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등이 호날두의 유력 행선지로 점쳐진 가운데 첼시 FC, 맨체스터 시티, AC밀란 등도 경쟁에 가세했다.

호날두는 앞서 지난 13일 1470만 유로(약 186억원) 탈세 혐의로 스페인 검찰에 기소된 후 스페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팀을 떠나겠다고 구단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날두의 폭탄선언에 다음 행선지로 가장 먼저 주목받은 곳은 맨유다. 라몬 칼데론 전 레알 마드리드 회장도 호날두가 맨유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오랫동안 호날두에 공을 들여온 생제르맹도 유력 후보구단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영국 선데이 익스프레스는 첼시가 호날두 영입 경쟁에 나선 것이라고 보도했다. 첼시의 구단주인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팀에 붙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호날두 영입을 시도하려 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스페인 매체 돈발론은 맨체스터 시티도 호날두 잡기 경쟁에 뛰어든다고 보도했다. 이탈리아의 명문구단 AC밀란은 계약 협상이 결렬된 골키퍼 지안루이지 돈나룸마와 호날두를 맞교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C밀란의 마시 밀리아노 미라벨리 단장은 현지 언론에 “호날두가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고 싶어하고, 그들(레알 마드리드)이 돈나룸마를 원하면, 우리 플로렌티노 페레스 레알 마드리드 회장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 프로축구 리그의 LA갤럭시와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명 선수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중국 슈퍼리그 구단들도 잠재적인 행선지로 거론되고 있다. 호날두의 레알 마드리드 잔류 가능성도 없다. 영국 미디어는 레알 마드리드가 호날두의 탈세 금액과 향후 유죄 선고시 부과될 벌금을 내준다면 호날두가 잔류를 택할 수도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호날두



제주도체육회는 지난 16일 제주도체육회관에서 지난달 충남 일원에서 열린 제46회 전국소년체전 제주도선수단에 대한 입상자 포상금 지급식을 개최했다.

제주도체육회, 소년체전 입상자 포상금 지급

현승탁 부회장 “체육 꿈나무 육성 적극 지원”

지난 5월 충남 일원에서 열린 제46회 전국소년체전대회에 참가한 제주도선수단에 대한 입상자 포상금 지급식이 지난 16일 도체육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현승탁 제주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정희봉 제주도교육청 체육복지과 장학관, 도체육회 임원, 각 경기단체 임원, 출전학교

교장, 감독, 코치, 선수단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도체육회는 제주도선수단의 사기 진작과 대표선수들의 자긍심 고취 등 목적을 위해 소년체전 입상자와 지도자들에게 매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승탁 상임부회장은 격려사에서 “3

0개 이상의 메달을 획득한 것은 제주 체육 사상 2009년 전남 체전 이후 최고의 성적으로 강한 제주체육의 위상을 한껏 드러냈다”며 “제주의 체육 꿈나무들이 2020년 도쿄올림픽 등 제주출신 선수의 올림픽 메달 1호를 배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극기자 haru@ihalla.com

박태환 “금메달 따고 오겠다” 세계대회 준비차 로마 출국

6년 만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박태환(28·인천시청)이 올해 첫 전지훈련을 하고 귀국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떠났다.

박태환은 18일 낮 인천국제공항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세계선수권대회 참가를 앞두고 마지막 준비를 하기 위해서다. 2년마다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올해는 다음 달 14일부터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다. 박태환이 출전하는 경영 종목 경기는 7월 23일부터 치른다.

박태환은 부다페스트와 시차가 없는 로마에서 마무리 훈련을 하고 다음 달 중순 결전지인 부다페스트로 이동할 계획이다. 이번 대회 준비를 위해 지난 2월 호주 시드니로 건너간 박태환은 4개월간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귀국했다. 박태환은 지난 16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회의 구체적인 목표를 묻자 “물론 금메달을 생각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심스럽다”면서도 “금메달을 따고 오겠다”고 밝혔다. 박태환은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자 자유형 100m·200m·400m·1.500m 등 네 종목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연합뉴스

제주에서 즐기는 레저스포츠 향연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 8월 25일~9월 28일 개최

2017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가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제주해변공단스경연대회(제주해변공연장 특설무대) > 8월 25-26일=국내·외 철인들이 참가하는 제18회 제주시장배 철인3종 경기(이호태우해수욕장과 주변 해안도로) > 9월 2~3일=전국인라인하키대회(제주종합경기장 인라인스케이팅장) > 9월 10일=제20회 전국바다낚시대회(제주시 해안도로) > 9월 15~17일=제16회 전국원더스포츠&카이트보딩 대회(제주시 능능해수욕장), 관광객들을 위한 패들보드 체험 > 9월 27~28일=제18회 돌이매이 골프대회가 부부대항전·개인전(오라골프장 등 도일원)으로 진행된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주변의 지역상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는 8월 25일~9월 28일까지 제주해변공단스경연대회(제주해변공연장 특설무대) > 8월 25-26일=국내·외 철인들이 참가하는 제18회 제주시장배 철인3종 경기(이호태우해수욕장과 주변 해안도로) > 9월 2~3일=전국인라인하키대회(제주종합경기장 인라인스케이팅장) > 9월 10일=제20회 전국바다낚시대회(제주시 해안도로) > 9월 15~17일=제16회 전국원더스포츠&카이트보딩 대회(제주시 능능해수욕장), 관광객들을 위한 패들보드 체험 > 9월 27~28일=제18회 돌이매이 골프대회가 부부대항전·개인전(오라골프장 등 도일원)으로 진행된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KBS1	KBS2	MBC	JIBS/SBS	KCTV
6:00 KBS 뉴스광장 7:50 인라간광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UHD 명품역사관 정도전 11:50 UHD 한국의 유산	6:10 길어서 세계 속으로 7: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그 여자의 바다 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살피는 남자들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훈장 오순남 8:30 생방송 전국시대 9:30 MBC 생활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25 생생 월드인류 스페셜 11:50 살피는 세상 스페셜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720뉴스 7:30 모닝와이드 3부 8:30 달콤한 원수 9:10 좋은아침 10:10 SBS 뉴스 10:25 SBS 생활경제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수업	6:00 다시보는 문화영화 6:20 VOD 소식 6:30 KCTV 스페셜 7:00 KCTV 뉴스 8:00 배워봅시다 관광영어 8:10 KCTV 중국어 뉴스 8:20 배워봅시다 관광일본어 8:30 앙코르 스페셜 피싱 9:00 KCTV 뉴스 9:30 KCTV 스페셜 10:00 제주도의의 정례회
12:00 KBS 뉴스 12 13:00 문화산책 13:50 팔도방송 스페셜 14:00 경제방송 바른정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15:30 101세의 프로젝트 16:00 4시 뉴스집중 17:00 KBS 뉴스 5 17:30 제주가 보인다	12:00 쌤, 마이케이 14:00 KBS 뉴스타임 14:10 사랑과 사람들 15:00 자동차부품 시장 위기2 15:30 TV 유치원 16:00 여유만만 17:00 VJ 토크대	12:00 MBC 정오뉴스 12:20 경제대거진 M 스페셜 13:05 아!하! 동물탐험대 2 13:50 파워배틀 와치카 14:20 텔레몬스터 14:25 짝? 짝! 키즈스쿨 14:55 내친구 마카다 15:25 [UHD]발발머느리 16:00 MBC 뉴스M 17:00 MBC 이브닝 뉴스	12:00 SBS 12뉴스 12: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12:40 JIBS 낮 뉴스 12:50 클라! NOW 제주 13:40 이야기 문화유산 14:00 경제방송 바른정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15:30 뉴스브리핑 17:00 SBS 오뉴스 17:50 JIBS 저녁뉴스	12:30 돛도리현 탐방기 13:00 KCTV 스페셜 13:30 앙코르 스페셜 피싱 14:00 KCTV 뉴스 14:20 KCTV 중국어 뉴스 14:30 배워봅시다 영어·일본어 14:50 돌이매이 골퍼타임 15:00 KCTV 다큐스페셜 15:50 VOD 소식 16:10 현장 토크쇼 택시 17:00 KCTV 뉴스 17:20 KCTV 중국어 뉴스 17:30 KCTV 스페셜
18:00 6시 내고향 18:55 우리 사는 세상 19:00 KBS 뉴스 7 19:35 우리말 겨루기 20: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21:00 KBS 뉴스 9 22:00 가요무대 23:00 KBS 뉴스라인 23:40 월요기획	18:00 KBS 경제타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이름 없는 여자 20:30 글로벌 24 20:55 제보자들 22:00 쌤, 마이케이 23:10 인병하세요	18:10 살피는 세상 시즌2 19:15 돌아온 복단지 19:55 MBC 뉴스데스크 20:55 [UHD]발발머느리 21:30 리얼스토리 눈 22:00 피수관 22:35 피수관 23:10 스토리 공감	18:10 열거적인 그녀 18:45 생방송 투데이 20:00 SBS 8 뉴스 20:35 JIBS 8 뉴스 20:55 생방송의 달인 22:00 열거적인 그녀 22:35 열거적인 그녀 23:10 초인가족 2017 23:45 초인가족 2017	18:00 돛도리현 탐방기 18:30 앙코르 스페셜 피싱 19:00 KCTV 뉴스 7 19:30 영어·중국어 뉴스 19:50 배워봅시다 관광일본어 20:00 돌이매이 골퍼타임 20:10 현장 토크쇼 택시 21:00 앙코르 스페셜 피싱 21:30 KCTV 종합뉴스 22:00 제주도의의 정례회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064)740-7331 MBC 064)740-2432 JIBS 064)740-7800 KCTV 064)741-7723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 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오늘의 운세 19일

김종상 지단(98년) 작명명학 원장
경기대 명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칭찬·격려 많으면 존경받고 주변에 베풀기 모인다. 48년 문서관련 일로 즐거우나, 안부 인사 필요. 60년 나를 리더로 필요. 재정 지원도 요청. 72년 사업 자금 지출·투자조 고민. 84년 활발한 추진력과 활동, 모임에 참석.

42년 종업원·아랫사람에게 관용 베풀면 이익 증가. 54년 자녀·직원이 도움청하니 분주하다. 66년 사람을 믿으면 손실·손해. 거절할 것. 78년 금전지출 시비 발생하니 돈거래는 신중. 90년 가족·동료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한다.

37년 상대와 마찰이 있으니 감정조절 필요. 49년 함께 일하거나 남 도울 일 생긴다. 61년 신경 예민, 대항하려 한다. 부부간 논쟁 주의. 73년 자신의 삶을 사랑하라. 비교 금지. 85년 상대의 도움이 큰 힘이 되지 못한다.

43년 사업자 확장보다 현재유지. 직장인 변동수 대비. 55년 내실 기하는데 집중해야 유리. 가정 부부간 의견차로 불화. 67년 분별력·판단력 높여주고 분실수. 망신수. 79년 부모·부부간 의견다툼·불화. 91년 신속한 결정이 이득.

38년 주변과 화합하면 안되는 일도 가능하다. 50년 아침 우울함이 늦게까지 가니 웃음을 만들 것. 62년 아버지·시어머니·처 때문에 분주하다. 74년 열심히 일했지만 기대보다 부족. 86년 이성교제·모임 있다. 적극 참여하라.

44년 숨이 트이는 형국으로 분주히 활동하라. 56년 두 마리 토끼를 쫓는 형국. 하나에 집중할 것. 68년 참고는 신속한 업무처리예 적. 기회를 찾아간다. 80년 취업·직장문제도 마음만 분주. 92년 과로·음주로 건강에 적신호.

39년 친구·동료에게 신변에 이상이 와 병문안. 51년 자금지출·손해수 우려. 문단속 철저. 조끼 귀가. 63년 정신적 스트레스가 일·생산에 해자를 만든다. 75년 과욕은 불만족을 잉태하는 괴물. 87년 취업·자격시험에선 신중할 것.

45년 시간이 나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서간갑. 57년 배우자 덕·재물이 길하다. 69년 한 일 정리하고 자리를 이동하려 한다. 81년 친구·동료와 정보를 멀리하면 자기개발에 발전이 늦는다. 93년 주변인의 지해를 얻어라.

40년 뜻밖에 수입이나 일이 풀린다. 아랫사람과 상의. 52년 불만을 겉으로 드러내지 말 것. 64년 자녀로 인한 기쁨·근심 있다. 76년 일무과중으로 피로, 구설 있으니 인행 주의. 88년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활용도 나의목표이다.

46년 투자시 신중함을 가져야 한다. 58년 문서상 일이 생기나 주위에 도움을 청하면 된다. 70년 매매·문서 계약건 성사 되나 자금력이 곤란. 82년 신경이 예민하니 상대와 경쟁하면 불리. 94년 관제·구설 오니 외부 출타는 자제.

41년 주위에 친한 사람 신변이상으로 병문안. 53년 돈 문제로 신경이나 다름. 65년 문서관련 문제 발생. 보종주의. 77년 상사와 관계를 잘 지속하고 이성교제 소식. 89년 기대하지 않던 소식, 소개팅이나 약속이 생긴다.

47년 감사를 표현해야 상대방이 알 수 있다. 59년 교통사고, 관계구설이 따르니 외출자제. 조끼귀가. 71년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추진해도 무방. 83년 결혼·맞선·선약이 생기기도 한다. 95년 기쁜 일과 격정거리가 찾아온다.